

2015 / 11 / 27 (FRI)

인터넷 / 소프트웨어 / IT서비스 이경일 6099-8505 shinjohyub@barofn.com

업종별 Comment

전일 국내 인터넷/SW 섹터는 1%대 상승.
미국 경제지표 호조와 유로존 추가 경기부양 기대감 등으로 투심 호전된 가운데 외국인의 순매수세로 상승세.

IT서비스는 업종이 1.9% 상승하며 가장 두드러졌고 게임주와 소프트웨어 업종 모두 1%대 상승. 인터넷은 0.5% 상승 마감.

수급측면에서는 기관의 매수세로 다우기술, 한글과컴퓨터, 더존비즈온, SK 강세. 반면 기관의 매도세로 신세계 I&C, 위메이드, 파티게임즈 약세

종목별로는 T커머스 시장이 본격적인 성장 국면에 돌입할 것이란 전망에 KTH가 8.4% 상승 마감.

외국인 매매동향

종목	순매수	종목	순매수
삼성에스디에	37 억	SK	-114 억
컴투스	29 억	NAVER	-61 억
NHN엔터	21 억	위메이드	-23 억
엔씨소프트	17 억	웹젠	-7 억
액토즈소프트	8 억	카카오	-4 억
코나아이	8 억	소리바다	-4 억
조이시티	6 억	바른손이앤에	-3 억
네오위즈게임	6 억	지트리비엔티	-3 억
이니텍	4 억	한글과컴퓨터	-2 억
민앤지	3 억	한국전자인증	-2 억
유비케어	3 억	오픈베이스	-2 억
인피니트헬스	2 억	투비소프트	-2 억
게임빌	2 억	KG이니시스	-2 억
파티게임즈	2 억	처음앤씨	-2 억
안랩	2 억	다우기술	-2 억

기관 매매동향

종목	순매수	종목	순매수
SK	138 억	엔씨소프트	-39 억
삼성에스디에	31 억	파티게임즈	-19 억
다우기술	21 억	카카오	-14 억
컴투스	13 억	KG이니시스	-10 억
게임빌	11 억	네오위즈게임	-10 억
NAVER	10 억	지트리비엔티	-7 억
한글과컴퓨터	8 억	신세계 I&C	-7 억
아이크래프트	6 억	유비벨룩스	-4 억
NHN엔터	4 억	코나아이	-4 억
액토즈소프트	3 억	위메이드	-4 억
케이사인	3 억	선데이토즈	-2 억
안랩	2 억	투비소프트	-2 억
더존비즈온	2 억	브리지텍	-2 억
웹젠	1 억	포스코 ICT	-2 억
골프존	1 억	조이맥스	-1 억

국내 인터넷/소프트웨어 Sector

Index	close	1D	YTD	외국인	기관
KRX IT	1,342.18	1.9%	-10.1%	316 억	1,326 억
(코) 인터넷	18,738.99	0.7%	-1.7%	-3 억	-15 억
(코) IT S/W&SVC	2,052.20	1.2%	2.7%	40 억	-44 억
(코) 소프트웨어	303.08	0.7%	23.6%	13 억	-23 억

인터넷	close	1D	YTD	외국인	기관
NAVER	633,000	0.5%	-11.1%	-61 억	10 억
카카오	112,300	0.2%	-9.1%	-4 억	-14 억
한국사이버결제	25,650	2.4%	-3.9%	1 억	0 억
KG이니시스	15,400	-2.2%	-14.0%	-2 억	-10 억
KG모빌리언스	13,250	0.8%	-8.9%	0 억	0 억
사람인에이치알	21,600	-1.8%	92.9%	1 억	-1 억
KTH	8,890	8.4%	16.2%	1 억	0 억
아프리카TV	26,550	1.0%	-0.7%	1 억	0 억
SK컴즈	6,650	-0.9%	0.0%	0 억	0 억
KT뮤직	4,730	0.7%	-12.2%	0 억	0 억
다날	9,470	2.2%	16.9%	1 억	-
에스24	9,880	0.3%	41.8%	0 억	0 억

IT서비스	close	1D	YTD	외국인	기관
삼성에스디에스	262,500	1.0%	-10.6%	37 억	31 억
SK	269,000	2.9%	26.0%	-114 억	138 억
다우기술	24,150	4.8%	102.1%	-2 억	21 억
포스코 ICT	4,905	-0.1%	-7.5%	0 억	-2 억
신세계 I&C	109,500	-2.7%	-2.2%	-1 억	-7 억
동부	5,090	0.6%	102.8%	0 억	-

게임	close	1D	YTD	외국인	기관
엔씨소프트	216,000	-1.1%	18.7%	17 억	-39 억
컴투스	113,500	9.7%	-5.8%	29 억	13 억
NHN엔터테인먼트	58,400	1.2%	-31.0%	21 억	4 억
웹젠	23,550	1.3%	-18.9%	-7 억	1 억
위메이드	35,150	-1.5%	-7.0%	-23 억	-4 억
선데이토즈	12,600	0.8%	-26.7%	0 억	-2 억
액토즈소프트	32,000	4.1%	-4.5%	8 억	3 억
게임빌	80,400	2.0%	-33.4%	2 억	11 억
네오위즈게임즈	16,050	0.6%	-29.5%	6 억	-10 억
넥슨지티	12,500	1.6%	-2.0%	0 억	1 억
데브시스템즈	26,500	1.1%	-44.5%	-1 억	0 억
조이시티	30,250	0.0%	49.8%	6 억	0 억
파티게임즈	14,000	-1.4%	-46.3%	2 억	-19 억
조이맥스	15,850	-0.3%	-41.9%	0 억	-1 억
한빛소프트	7,180	1.8%	24.0%	0 억	-1 억
와이드온라인	6,640	0.3%	43.7%	1 억	-

소프트웨어	close	1D	YTD	외국인	기관
코나아이	34,750	2.2%	3.1%	8 억	-4 억
더존비즈온	22,750	3.4%	144.6%	1 억	2 억
한글과컴퓨터	21,850	4.0%	8.2%	-2 억	8 억
골프존	93,700	0.9%	271.1%	1 억	1 억
안랩	43,100	0.9%	19.7%	2 억	2 억
한국정보인증	14,000	-1.1%	302.9%	0 억	-1 억
슈프리마	19,150	0.3%	-24.8%	-1 억	0 억
갤럭시아컴즈	5,690	2.2%	110.0%	1 억	-
지트리비엔티	14,250	-3.7%	313.0%	-3 억	-7 억
MDS테크	22,800	1.3%	10.1%	0 억	0 억
오상자이엘	10,750	0.9%	-19.2%	0 억	-
인피니트헬스케어	10,050	0.5%	38.8%	2 억	-
케이사인	2,995	0.0%	21.7%	1 억	3 억

해외 Internet/Software Sector

Index	close	1D	YTD
MSCI IT	153.57	0.2%	4.5%
MSCI Internet	196.76	0.0%	28.8%
MSCI IT Services	124.76	0.0%	6.0%
MSCI Software	181.42	0.1%	10.9%

Internet	close	1D	YTD
Google	769.26	0.0%	45.0%
Facebook	105.41	0.0%	35.1%
Tencent	155.70	-0.4%	38.4%
Baidu	201.80	0.0%	-11.5%
Yahoo	33.16	0.0%	-34.3%
LinkedIn	245.66	0.0%	6.9%
Twitter	26.06	0.0%	-27.3%
Weibo	18.51	0.0%	30.0%
SINA	51.01	0.0%	36.4%

IT Services	close	1D	YTD
IBM	138.00	0.0%	-14.0%
TCS	2,345.55	-0.9%	-8.3%
Accenture	107.10	0.0%	19.9%
HP	12.64	0.0%	-68.5%
Infosys	1,052.40	1.1%	6.7%
Wipro	569.50	1.0%	2.6%
NTT Data	6,070	0.0%	34.4%
Fujitsu	625.50	0.2%	-2.9%
CSC	69.46	0.0%	10.2%

Games	close	1D	YTD
Nintendo	19,680	1.3%	56.1%
EA	69.51	0.0%	47.8%
Blizzard	37.23	0.0%	84.8%
NEXON	1,984	1.7%	76.4%
NAMCO	2,803	-0.4%	9.3%
King	17.70	0.0%	15.2%
King	17.70	0.0%	15.2%
Konami	3,005	-0.3%	35.4%
Square Enix	2,915	0.4%	16.2%
GungHo	397	-0.5%	-10.0%
DeNA	1,990	1.5%	37.6%
Sega	1,367	2.2%	-12.1%
Take-Two	35.62	0.0%	27.1%
Zynga	2.60	0.0%	-2.3%
Ubisoft	26.75	0.2%	76.3%
Gree	614	3.0%	-15.2%
Changyou	22.51	0.0%	-17.7%

Software	close	1D	YTD
Microsoft	53.69	0.0%	15.6%
Oracle	39.26	0.0%	-12.7%
SAP	79.00	0.0%	13.4%
EMC	25.42	0.0%	-14.5%
Salesforce	80.41	0.0%	35.6%
Adobe	91.77	0.0%	26.2%
Vmware	59.95	0.0%	-27.4%
Intuit	99.85	0.0%	8.3%
Syantec	19.86	0.0%	-22.6%
CA	28.08	0.0%	-7.8%
Citrix	76.36	0.0%	19.7%
Autodesk	62.92	0.0%	4.8%
Synopsys	49.79	0.0%	14.5%

인터넷 Internet

Region	종목	1D	Category
국내	KTH	8.4%	최근이슈

News & Issue

KTH, T커머스 시장 본격화 될 전망

KTH가 T커머스(TV 방송을 활용한 전자상거래) 시장이 본격적인 성장 국면에 진입했다는 평가에 강세. KTH의 T커머스 매출액은 KT그룹과의 시너지에 힘입어 2015~2017년 연평균 63% 증가할 전망이다. 매출액과 이익 성장성이 높아 밸류에이션 재평가가 예상된다.

국내 T커머스 시장은 성장 초기 국면이며 작년 국내 T커머스 매출은 전년 대비 249% 증가했고 향후 2년간 연평균 90% 증가할 전망이다. T커머스 매출이 급증하는 이유로는 IPTV 가입자수 급증, TV홈쇼핑 패러다임의 진화, 낮은 채널 의존도, 빅데이터 기반 고객 맞춤형 상품추천과 간편결제 서비스 등이 꼽힌다.

KTH는 T커머스 시장을 선도해 가장 많은 가구수에 T커머스를 송출하고 있다. 영화 VOD 시장의 성장세가 지속되고 있어 내년 콘텐츠 유통 사업 매출은 전년 대비 15.5% 증가할 전망이다. KTH는 T커머스와 콘텐츠 사업을 함께 영위하고 있어 연동형 서비스 활성화에 유리하다.

Region	종목	1D	Category
국내	KG이니시스	-2.2%	최근이슈

News & Issue

KG이니시스, KG로지스 재무구조 개선 위해 550억 원 출자전환

KG이니시스는 26일 공시를 통해 KG로지스의 재무구조개선을 위한 550억 원 규모의 출자전환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규모의 경제 실현을 통한 시너지 창출을 위해 동부택배 인수 후 통합 등에 투입됐고, 온라인 커머스 성장과 더불어 물류 사업의 중요성이 대두되어 차별화된 배송 서비스를 위해 신 물류 IT시스템 구축, 집/배송 통합 물류 센터 구축, 전국 배송 네트워크 보강 등에 대한 투자 비용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KG이니시스는 이번 출자전환을 통해 KG로지스의 재무구조 개선을 이루고 수익 증대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며, 이는 이후 100% 지분 보유중인 KG로지스의 기업가치 증가가 KG이니시스의 기업가치 증가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근 물류/택배가 전자상거래의 핵심 역량으로 부상해, 소셜커머스 업체 쿠팡과 카카오 등 다양한 업계에서 차별화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물류'에 대한 대규모 투자하는 사례에서 보듯이, 택배가 단순히 물품을 배송하는 행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 만족도에 직결된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물류에 대규모 투자를 한 쿠팡의 경우 2014년 로켓배송을 시작한 후 매출이 7배 이상 증가했으며, 글로벌 전자상거래 기업 아마존 또한 당일/24시간 배송을 통해 미국 이커머스 시장 점유율 20%를 차지할 만큼 크게 성장할 수 있었다. 때문에 기존 업체들을 비롯한 신규 업체들의 물류/택배 시장 진입이 점차 가속화되고 여기에 해외의 광군제, 블랙프라이데이, 국내의 K세일데이와 한국판 블랙프라이데이 등 온라인 쇼핑 할인 행사가 급증하면서 배송 물량이 늘어나, 국내 택배시장은 지난 해 매출 3조 9,662억에서 가파르게 성장해 올해 5조 원대를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KG이니시스는 앞서 거론한 아마존 역시 당일/24시간 배송 체계를 구축하기까지 오랜 시간과, 투자 비용이 소요됐지만 실적이 회복되기 시작하면서 무서운 속도로 성장하며 매출과 시너지를 보였고 결국 현재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전자상거래 기업으로 거듭난 만큼, KG이니시스는 KG로지스 역시 시간을 들여 성장을 이끌어 내야 하는 단계라고 보고 있다.

KG이니시스 관계자는 "온라인 쇼핑 시 구매, 결제, 배송은 연속성을 가지고 있는 일련의 프로세스로, KG이니시스가 가지고 있는 10만 개의 가맹점은 분명히 KG로지스와 시너지가 날 것"이라며, "자회사 KG로지스를 통해 고객이 구매 결정한 후 '결제'에서 '배송'까지 이어지는 온라인 쇼핑 프로세스를 업그레이드해 고객만족도를 최우선 가치로 하겠다"고 말했다. KG로지스는 현재 7%대인 시장점유율을 10%대로 높여, 택배 시장 5위권으로 진입하고 2017년까지 흑자 전환을 이뤄낼 계획이다.

IT서비스 IT Services

Region	종목	1D	Category
국내	Industry		최근이슈

News & Issue

국내 인터넷은행 시장 규모 7.3조원 전망, 은행수 9개가 적정

국내 인터넷전문은행 시장 규모는 7.3조원에 달할 것이란 주장이 제기됐다. 또, 기존 금융권 신용대출 시장의 19% 수준까지 침투가 가능할 것이란 예측도 나왔다. 26일 서울 을지로 퍼럼타워에서 개최된 금융결제원, 한국지급결제학회 주최 '핀테크의 진화방향과 미래전망'세미나에서 엘로금융그룹 신승현 부사장은 "미국보다 한국의 인터넷전문은행 시장규모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며 "국내 인터넷전문은행은 대출 114조, 이익은 0.9조가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아이뱅크 컨소시엄 인터넷전문은행설립 TF에 몸담고 있는 신 부사장은 "현재 한국의 은행은 저 리스크 영업을 과도하게 추구하고 있다"며 "적재적소에 자금공급이 안 돼 인터넷은행의 추가 잠재시장이 존재한다"고 말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미국이나 유럽의 인터넷전문은행 사례를 많이 참고하고 있다. 하지만 적어도 미국의 인터넷전문은행 시장보다 국내의 발전 가능성이 더 높다는 설명이다. 현재 미국 인터넷전문은행은 모회사와 제휴사 활용 서비스 및 비용절감을 무기로 하는 1세대 인터넷전문은행이 대부분이다.

하지만 국내의 경우 1세대를 건너뛰고 스마트 디바이스와 핀테크 기술을 적극 활용한 2세대 인터넷전문은행으로 바로 직행하는 만큼 기회가 더 많이 존재한다는 설명이다. 또 저금리기조와 기존 금융기관의 비효율을 한국형 인터넷전문은행에 기회가 될 것이란 주장도 나왔다. 이에 따라 신 부사장은 "시장가치 기준으로 한국 인터넷전문은행은 7.3조원 규모의 산업으로 점유율은 장기적으로 지속 상승할 것"이라며 "안정화 단계 이후 인터넷전문은행 적정개수는 9개 내외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Region	종목	1D	Category
국내	SK	2.9%	최근이슈

SK, 5대 성장 사업 기대감에 강세

SK가 5대 성장 사업 진행으로 영업가치 및 자회사 지분가치 재평가가 예상된다. 1) IT서비스 확장(자체사업): Cloud, Big Data, IoT 등을 활용한 Global Top tier 수준 IT서비스 역량 확대. 이에 대한 일환으로 중국 훈하이그룹 내 팍스콘과 합작기업 FSK홀딩스(팍스콘 70%, 동사 30%) 설립,향후 팍스콘의 중국 충칭 공장 등 스마트 팩토리 구현에 관한 다양한 사업기회 확보 예상.

2) ICT 융합보안, 스마트물류 진출(자체사업): ICT 역량 바탕으로 신사업 확대융합보안 서비스 플랫폼 구축, 디바이스 제조 및 바이오 인식, 영상감시 등의 소프트웨어 분야로 사업 확장. 한편 스마트물류사업 추진, 그룹 자체 수요 기반으로 역량 강화(~'16년),이후 훈하이 그룹 등과의 파트너십을 활용해 중국 중심으로 사업 확대('17년~) 추진할 계획.

3) 바이오/제약(SK바이오팜, SK바이오텍): 의약사업에서의 새로운 가치 창출. 2018년까지 신약개발-생산-마케팅까지 의약사업 내 전 부문의 Value chain 통합 및 이후 IPO 추진 및 성장 잠재력이 큰 신약개발업체 대상 M&A 추진 예정. SK바이오팜은 현재 중추신경계 분야에 역량을 집중하여 다수 신약후보물질 개발 후 글로벌 제약사 대상 L/O 진행. 특히 자체 역량 기반으로 뇌전증 치료제 (YKP3089)의 성공적 2상 후기 결과 확보 예상 및 3상 진입 예정. '18년부터 직접 제조·판매 진행 시 연 매출 1조원 달성 예상

4) LNG(SK E&S): 그룹 내 LNG Value chain 통합/확장, 중국 내 신규 사업 확보저가 LNG 소싱(미국, 호주 등)을 통한 가격 경쟁력 확보로 2020년까지 500만톤 규모 사업으로 성장 추진. 특히 중국 현지 기업과의 파트너십 구축을 통해 LNG 사업기회 창출 예상.

5) 반도체 모듈(에센코어) 및 소재(OCI머티리얼즈, JV 설립): 고성장, 고수익 사업모델 확충에센코어 중심으로 반도체 모듈 사업 본격화(~19년 매출 1.5조원 목표). 특히 반도체 산업성장 및 공정 난이도 증가에 따라 반도체 소재 시장 성장의 예상으로 OCI머티리얼즈 인수 및 JV를 통해 신규 고성장, 고수익 사업포트폴리오 확보 추진할 계획.

Region	종목	1D	Category
국내	Industry		최근이슈

'구름 전쟁' 2막 시작됐다, 클라우드 강호들의 전략은?

클라우드 컴퓨팅을 둘러싼 업체 간 전쟁이 또 다시 시작될 전망이다. 각 업체들은 그동안 약점으로 지적됐던 부분을 보강하며 새로운 전쟁에 임할 준비를 마쳤다. 현재 클라우드 시장은 선두를 달리고 있는 아마존웹서비스(AWS)를 중심으로 마이크로소프트(MS)와 구글, IBM 등이 뒤를 쫓고 있는 상황이다. AWS와 구글은 엔터프라이즈, MS는 개방성 등을 내세워 피 튀기는 경쟁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우선 AWS는 최근 가상 서버(VM)를 빌려주는 EC2 서비스에서 'EC2 데디케이트드 호스트 옵션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는 특정한 물리적인 서버를 빌려주는 것으로, 독립적인 인프라를 사용하기 원하는 엔터프라이즈 고객을 위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클라우드 환경에선 한 대의 물리적 서버 내의 VM을 여러 고객들에게 빌려주는 형태다. 즉, 물리적인 서버를 공유하는 형태다 보니, 엔터프라이즈 고객들이 사용하기 꺼려하는 경향이 있었다. 이 서비스 옵션을 통해 AWS는 엔터프라이즈 고객 유치에 적극 나설 것으로 보인다. 다만 현재 이 서비스는 가상사설네트워크인 '버추얼 프라이빗 클라우드(VPC)'를 사용하는 고객만 이용할 수 있다. 내년 초 한국에도 AWS의 클라우드 인프라(리전)가 마련되는 만큼, 국내 고객 역시 이를 이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구글의 경우, 클라우드 분야의 유력 인사를 영입하는 것을 택했다. 구글은 M웨어 공동창업자였던 다이엔 그린을 클라우드 사업 담당 수석부사장에 앉혔다. 실리콘밸리의 여제로 통하는 다이엔 그린은 VM웨어가 EMC에 인수된 이후에도 이사회에 꾸준히 참여하며 강력한 힘을 발휘해왔다. 구글은 그린 수석 부사장이 운영하던 클라우드 애플리케이션 개발 툴 업체인 비팝(Bepop)까지 인수해 자사의 클라우드 전략에 힘을 보탤 전망이다.

VM웨어는 가상화 기술을 기반으로 클라우드 컴퓨팅과 엔드유저컴퓨팅, 보안 등 다양한 영역까지 확대하고 있다. 현재 기업 내부에 구축되는 프라이빗 클라우드 및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분야에선 강자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구글은 그린 부사장 영입을 통해 특히 기업용 시장 공략을 위한 새로운 전략을 짤 것으로 예상된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자사의 클라우드 서비스 '애저' 매출 확대를 위해 '오픈소스 소프트웨어(OSS)' 전략을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다. 현재 MS 애저에서 운영되는 가상머신(VM) 중 22%는 리눅스 운영체제(OS)에서 돌아가고 있다. 즉, 4개 VM 중 1개는 리눅스 사용한다는 얘기다. 이는 매년 200% 이상 성장하고 있으며, MS는 수세와 데비안, 우분투, 레드햇OS, 오라클 리눅스, 그리고 최근엔 오랜 앙숙이던 레드햇과 손을 잡고 레드햇 리눅스(RHEL)까지 거의 모든 리눅스 OS를 제공 중이다. '원도 제국'이라는 별칭에서도 알 수 있듯 MS는 오픈소스와는 정 반대에 있던 상용 SW의 대표 기업이었다. 그러나 퍼블릭 클라우드 서비스 확산을 위해선 오픈소스 SW를 적극 받아들이고, 상생하겠다는 새로운 전략을 취하고 있다.

이밖에 또 다른 신흥강자로는 알리바바를 들 수 있다. 알리바바는 아마존과 자주 비교된다. 그만큼 알리바바의 행보가 아마존과 닮아있기 때문이다. 아마존에게 AWS가 있다면, 알리바바에겐 '알리 클라우드'라는 클라우드 서비스가 있다. 특히 최근 중국판 '블랙 프라이데이'라는 광군절에 폭증한 트래픽을 클라우드 인프라를 통해 무리 없이 처리하며 그 위력을 입증했다. 지난 11일 광군절 하루 동안 알리바바가 올린 매출은 지난해보다 60% 이상 증가한 900억위안(한화로 약 17조원)에 달했으며, 이날 알리바바가 처리한 트래픽은 14억만건 이상이었다. 알리바바는 자사의 클라우드 데이터센터를 미국과 유럽 등으로까지 확대하며 신흥강자로 떠오르고 있다. 한편 전세계 클라우드 시장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IDC에 따르면, 전세계 클라우드 서비스 및 이와 관련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매출이 2020년이면 현재의 약 3배인 5000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Region	종목	1D	Category
국내	더존비즈온	3.4%	최근이슈

더존비즈온, 클라우드 서비스 확대 최대 수혜株

더존비즈온이 내년 클라우드 서비스 확대의 최대 수혜주가 될 것이라는 평가에 강세. 더존비즈온이 2011년부터 시작한 클라우드 서비스가 본격적인 가입자 확대에 힘입어 성장궤도에 진입하고 있어 지속적인 실적 성장과 수익성 개선에 기여할 전망. 정부의 클라우드 발전법 본격 시행 확대에 따라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수요 증가가 기대되고 있는 가운데, 2012년부터 본격적으로 가입자가 급증하면서 관련 매출도 증가하고 있다.

지난 2012년 38억원 매출을 기록한 클라우드 서비스는 지난해 166억원, 올해는 233억원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공공 및 민간 클라우드 서비스가 본격적으로 확대되면서 내년부터 향후 3년간은 매년 30%대의 고성장을 기록해 그 동안 적자가 지속됐던 클라우드 사업은 내년부터 흑자로 돌아설 것으로 예상된다.

더존비즈온의 주력 사업인 전사적자원관리(ERP) 서비스의 성장도 계속될 것이라고 전망된다. 지난해 매출 기준 점유율 65.0%를 차지하고 있는 더존비즈온의 ERP 서비스 시장지배력은 꾸준히 유지되거나 증가할 것이며 이를 기반으로 다양한 플랫폼 서비스로 진화하면서 가입자당 평균 매출 (ARPU) 상승은 물론 수익성 개선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더존비즈온은 기존 ERP 제품과 연계해 그룹웨어와 보안솔루션을 추가하고 있고, 기존 데스크탑PC 중심에서 모바일 환경으로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다. 기업내 중요 데이터를 자동으로 백업 및 보관 관리하는 클라우드형 데이터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다.

Region	종목	1D	Category
국내	한글과컴퓨터	4.0%	최근이슈

한글과컴퓨터, 해외 시장 진출 가시화

한글과컴퓨터가 해외 시장 진출을 통한 성장이 가시화되고 있다는 평가에 강세. 중국, 아르헨티나를 중심으로 1차적인 성과가 나타날 전망이다.

한글과컴퓨터는 최근 아르헨티나의 대형 SI(시스템통합)기업 피버코프와 클라우드 오피스 솔루션 공급계약을 체결했다. 또한 중국 킹소프트와도 웹 오피스 공급을 논의하고 있어 조만간 결실을 맺을 것이라 전망이다.

MS오피스와의 호환을 대폭 개선하면서 중동과 유럽지역을 중심으로 보급을 늘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해외 진출 성공 가능성이 높은 편이라 판단됨.

회사의 배당성향 증가도 긍정적. 경영진은 언론을 통해 올해 주당400원의 현금배당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로써 배당성향은 지난해보다 6.6%포인트 증가한 36.4%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11월 27일 현재 지난 3개월간 위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증권 발행에 참여한 적이 없습니다.
- 당사는 11월 27일 현재 위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본 조사분석자료의 애널리스트는 11월 27일 현재 위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 본 조사분석자료는 기관투자가 등 제 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 본 조사분석자료에는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애널리스트의 의견이 정확하게 반영되었음을 확인합니다.
-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게 있습니다.
-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동의 없이 어떠한 경우에도 어떠한 형태로든 복제, 배포, 전송, 변형, 대역할 수 없습니다.
- 본 조사분석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